

보도시점 2026. 7. 30.(목) 15:00 (2026. 7. 31.(금) 조간)

안전경영 우수기업, 민간 금융권에서도 대출금리 2.1%p 감면받는다

- 공단, NH농협금융과 산업안전·금융 연계 ESG 경영 확산 업무협약 체결
- 민간 금융기관과 최초 협업, 안전경영 우수기업 대상 대출금리 최대 2.1%p 감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과 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찬우)는 7월 30일(목) 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산업안전·금융 연계 ESG 경영 확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안전·금융 연계 ESG 경영 확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 일시 : 2026. 7. 30.(목) 15:00
- 장소 :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서울특별시 중구)
- 참석 : (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 등
(농협금융지주) 이찬우 회장 등

공단은 안전보건과 금융을 결합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업계와 협력을 강화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공공 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 등)에 그친 지원 범위가 최초로 민간 금융권까지 확대됐고, 안전에 취약한 농촌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안전경영 우수기업 대출금리 감면, ▲안전분야 ESG 경영지원 연계, ▲안전 신기술 생태계 강화, ▲농협 지점망을 활용한 소외지역 안전문화 확산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산업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인정 등 안전경영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으면 NH농협금융의 전용 여신 우대 상품을 통해 대출금리를 최대 2.1%p 감면받게 된다.

또한 전국 농협 점포망을 통해 농촌 등 공공정책 소외지역 기업에도 공단의 기술·재정지원 사업이 안내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정보 접근이 어려웠던 농업 법인과 중·소도시 영세 사업장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NH농협금융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업재해예방 정보를 바탕으로 중소·중견기업의 ESG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지원 등의 ESG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이 외에도 안전 관련 기술·제품을 보유한 벤처 기업도 공단과 함께 공동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안전-금융 협력을 민간 금융권까지 넓혀, 안전투자가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안전이 가장 빠릅니다'라는 공단 슬로건과 같이 안전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자 성장의 발판이 되는 시대를 민간 금융권과 함께 열어가겠다"라고 강조하며 "농협의 전국 인프라를 통해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농촌 등 소외지역까지 안전문화가 전파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NH농협금융지주 이찬우 회장은 "금융의 역할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안전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는 '안전보건 금융'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NH농협금융은 정부의 정책과 발맞춰 기업과 금융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 금융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ESG경영성과실 ESG경영부	책임자	부 장	차호섭	(052-703-0535)
		담당자	차 장	곽진호	(052-703-0538)

